

#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꼼꼼하게'

### 전주시, 배수펌프장·우수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안전 점검 실시

전주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 우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사전 대비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들 방재시설을 운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와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상태로, 운용인력들은 지난 7일부터 상시 근무에 임하고 있다.

또한 시는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전주천 일대에 설치된 배수펌프에 대해 △정밀 안전 점검 △원격제어(TM/TC) 통신설비 점검 △전기인입 △수문 및 펌프 시험가동 등을 완료하는 등 여름철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7월 1일 강수량

240mm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 위기를 겪은 점리동 진기마을 일원의 배수로 1.4km 및 진기동 우수지 1만2000㎡와 전주천 배수펌프시설 10개소에 대해 통수단면 확보 및 저류량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 여부 등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는 등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정선 전주시 안전정책과장은 "작년 7월 기록적인 폭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재해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올 여름에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완산구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박시용) 새마을부녀회(회장 권현숙)에서는 29일 오전 8시부터 관내에 있는 서원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어린이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교통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회주관으로 효자2동 동장과 서원초등학교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전국모범순찰자전주완산지회 등 30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으며, 학생들과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를 잘 지켜 학교 앞 보행자 안전 살피기에 노력해 줄 것을 홍보했다.



전주시는 2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인구 위기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 전주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역량 '하나로'

#### 전략·부서별 신규 시책 발굴, 쟁점 사항 등 공유

전주시는 2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 위기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 인구 위기 대응 T/F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김종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을 단장으로 20개 부서 27명의 팀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시 인구 현황 분석을 청취한 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의 자

립 적극 지원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 생활 지원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 △체류형 생활인구 확충 등 5대 전략별 중점 사업 등 기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함께 점검했다.

이와 각각의 전략 및 부서별도 인구 반등을 위한 시민 체감형 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하고, 쟁점 사항을 공유·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해 공감하며 △결혼·청년 정착 지원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체계적 대응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종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인구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은 소관 부서 및 인구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적의 정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29일 '어린이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교통캠페인'을 진행했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전주시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29일 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예술가를 초청해 '서학, 예술에 머물다' 강연을 개최했다.

## '서학, 예술에 머물다' 강연

####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이현 사진작가 초청

전주시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29일 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예술가를 초청해 예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서학, 예술에 머물다'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도서관을 찾은 이현 사진작가는 '이렇게나 많은 이미지를 사이에서'를 주제로 사진과 이미지 해석에 대한 다양한 화두를 제시하며, 강연에 참여한 시민들이 사진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인이자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이현 사진작가는 시카고예술대학교에서 사진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30여 회의 사진전에 참여했다. 지난 2019년에는 큐레이터 메리 스탠리가 선정한 '주목해야 할 사진가'에 선정됐으

며, 저서로 사진에세이 '당신의 정면과 나의 정면이 반대로 움직일 때' 등이 있다.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이번 이현 사진작가 강연에 이어 오는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송사비(클래식 유튜브) △고희경 교수(홍익대학교 공예예술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의 밑도 없는 예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주변에 숨 쉬는 예술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높은 수준의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덕진구, 공한지 무료주차장 추가 조성

#### 9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도 완료

전주시 덕진구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무료주차장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9개소 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와 주택가 인근의 미사용 공한지를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주차장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토지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100%)해주는 공익사업이다.

이번에 추가된 주차장은 354㎡, 16면 규모로 덕진동2가 일원에 조성되었고, 진북동 등 9개 노후화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내판 및 주차선 정비, 바닥 정리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와



더불어 더욱 깔끔하고 안전하게 개선된 주차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만능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